

효과적인 기생충 구제



박 응 복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머리말

우리나라 돼지의 기생충 감염은 다른 나라에 비해 단순하고 방제는 쉬운 편이다. 국내에서 알려진 돼지 기생충은 내부기생충으로서 돼지회충, 돼지장결절충, 돼지편충, 랜숨간충, 돼지폐충이 있고, 외부기생충으로서 돼지옴과 돼지이를 들 수 있다. 내부기생충 중에서 돼지장결절충과 랜숨간충은 혼이 있지만, 그 병해작용은 별 문제가 안되고, 돼지폐충은 돈사바닥이 모두 콘크리트이고 레마미줄 계통의 구충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근래에는 거의 볼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국내에서 돼지의 내부기생충증은 돼지회충과 돼지편충을 대상으로 삼아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내부기생충을 효과적으로 방제하는 것은 맹목적으로 구충제를 사료에 첨가하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첫째는 그 기생충이 어느 시기에 감염되고 감염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둘째는 감염기간 즉, 돼지의 어느 일령에 기생해 있는가를 이해해야 한다. 셋째는 알맞는 구충제를 어느 시기에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돼지회충

(1) 생활사

충란속의 배(胚)세포는 약 2주일만에 자충으로 발육하는데 알껍질을 둘러싼 채로 오랫동안 경과하며, 매우 저항성이 강하다. 이 상태의 난자가 감염원이 된다. 돼지에 섭취된 난자는 위속에서 부화되어 장에서 간장으로 이행하고 다시 폐장→기관→식도를 거쳐 장에 도달한다. 자충의 체내이행기간은 35~60일이고, 체내에 기생한 회충은 약 6개월~1년간 생존한다.

(2) 증상

돼지회충은 대개 2~6개월의 자돈에 기생하여 많은 충체가 감염해 있을 경우에는 성장장애를 나타낸다. 특징적인 증상은 없고 기침이나 설사를 하고 배가 부른 경우가 있다.

(3) 치료

회충구충제로서 가장 적합한 약제는 피페라진(piperazine)이다. 275~440mg/kg 체중용량을 사료에 첨가하여 먹인다. 피페라진을

첨가한 사료는 8~12시간 이내에 먹어야 하기 때문에 투약 전야에 굶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투약은 2개월령에 시행한다. 이 약제는 체내 이행 중의 자충에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첫 투약 2개월 후에 다시 투약한다. 레바미졸(le-yermizole) 8mg/kg 체중 용량의 사료첨가(1일간)는 회충의 성충 뿐만 아니라 체내이행자충도 구제한다.

돼지편충

2~6개월령의 비육돈에서 만성적 설사가 있어 위축돈이 되고 항생제 치료를 하여도 효과가 없는 예를 보면 맹장과 결장에 편충이 기생한 것을 확인한다.

(1) 생활사

분변속에 배설된 난자는 약 3주만에 감염자충이 되어 난각속에 그대로 들어 있다가 감염원이 된다. 이런 상태의 난자는 저항성이 강하다. 이것이 돼지에 섭취된지 2주후에 맹장이나 결장점막에서 성숙한다. 결국 배설된 난자가 돼지에 감염되어 산란하는데는 41~45일이 소요되고, 돼지에 기생한 편충제는 약 3~5개월간 생존한다.

(2) 증상

주로 2~6개월령의 비육돈에서 증상을 보여 식욕감퇴, 가속성인 설사 및 빈혈을 일으켜서 위축돈이 된다. 설사는 오래 가기 때문에, 살모넬라성 대장염을 의심하게 되고 혈변이 있을 경우에는 돼지적리와 혼동된다. 돼지편충증은 다른 농장에서 자주 돼지를 도입하는 전업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예가 많아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본다. 특히, 시판되는 발효성의 깔

짚류를 돈사에 쓸 경우에는 편충발육의 온상이 되어 큰 타격을 받는다. 발효성 깔짚을 사용할 경우에는 미리 기생충감염이 있는가를 확인할 것이다.

(3) 치료

피페라진이나 레바미졸은 편충에는 효과가 없다. 편충증에 특효가 있는 것은 유기인제인 디크로르보스(dishorvos)이다. 용량은 11.2~21.6mg/kg 체중이고, 회충과 돼지장결절충에도 약효가 좋다. 펜벤다졸(fenbendazole)이나 올스펜벤다졸(oxfenbendazole)을 사료에 6mg/kg 체중 용량으로 첨가하여 3~5일간 투여하면 돼지회충, 돼지편충 및 돼지장결절충을 구제한다.

돼지옴

돼지옴벌레는 돼지의 나이에 관계없이 피부에 굴을 뚫고 기생하여 심한 가려움증을 일으킨다. 일단 발생하면 전돈군에 만연하여 오랫동안 피해가 계속된다.

(1) 생활사

옴벌레는 알, 유충, 약충(若虫) 및 성충의 4단계 발육이 있다. 암컷은 매일 2~3개의 알을 한달동안 낳는다. 알은 4~5일만에 부화하여 10일후에 성충이 된다.

(2) 증상

환돈은 처음에 콧등, 눈 주위 및 귀에 발진(發疹)이 나타나서 붉은 점을 보게 된다. 이것은 구진(丘疹)→물집→고름집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세균이 감염으로 진문이 나와서 습진이 되고 딱지가 덮힌다. 이러한 피부병변은 턱,

겨드랑이, 배, 사타구니로 번지고 심한 가려움 증을 보인다. 만성이 되면 피부가 비후되어 주름지고 털이 빠진다. 습진이나 담마진(蕁麻疹)도 위와 같은 피부병변이 나타나고 가려움증이 따르기 때문에 피부병변 부위에서 음벌레를 검출해야 한다. 귀 주위의 피부병변을 진피층까지 깊게 긁어내어 5%의 가성카리움 용액에 담구고, 37°C의 부란기 속에 1~2시간 두어서 녹인다음 원심분리한 것을 현미경 검사한다.

(3) 치료

음벌레의 구충에는 이버멕틴(Ivermectin)

이 가장 효과가 좋다. 300 μ g/kg 체중 용량을 1회 피하 주사하면 모든 발육 단계의 벌레가 완전 구제된다. 이 약제는 고가이고 많은 비육돈에 일제히 투약하기에는 과중한 부담이 된다. 따라서 피부병 돈에서 음벌레를 확인하고 투약을 결정할 것이다.

또한 린텐(0.05%), 마리치온(0.5%), 네구본(0.125%), 벤질벤조이트(15~30%)를 분무하거나 약욕을 시킨다. 겨울이나 습기찬 여름에는 가루약이 효과적이다. 이들 살충제가 알에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2주 간격으로 2~3번 구충을 반복하고 바닥 청소를 철저히 하고 바닥과 벽에도 살충제를 분무한다. *

이제 선택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농장의 상황에 따라 고르십시오.

알프스 백신

트리콤 백

대장균
설사증

돈단독

A R

파스튜렐라
폐염

헤모필러스
폐염

에이피에스 백신

돼지 AR-P 백

녹십자수의약품주식회사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동 1031-29 ☎ 582-9181-5
본사·공장 : 경기도용인군기흥읍구갈리227-5 ☎ 수원 8 3423/4